비판적 사고와 토론 (011) 소감문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 허용해야 한다> 반대측 갑 2016133 이유진

저에게는 이번 토론이 고등학교 1학년 이후 처음인, 4년만의 토론이었습니다. 발표와 조별과제도 모두 3년만이었습니다.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오랜만이라 긴장도 많이 하고 준비 기간 내내 초조했습니다. 토론의 부담이 크다 보니 발표자로 참여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어서 더 크게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또, ‘강력 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평소 제 개인적인 입장과 반대인데 평소 반대측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와서 처음부터 겁을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잘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염려가 너무 컸습니다.

오랜만의 조별과제와 발표인 만큼 만족스럽게 마무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더 부족한 모습을 보여 스스로가 아쉽습니다.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잘 말할 수 있던 것도 말하지 못하고 당황하는 모습을 크게 보인 것 같아 후회도 되고 많이 아쉽지만, 잃은 것만 있지는 않은 매우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는 이번 논제에 대해 평소에 명확하지 않은 근거로 당연히 강력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최근 대두되고 있는 여성 인권과 관련 지어, 수 많은 여성 혐오 범죄와 그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분노했고 신상 공개 조치가 실효성이 없음을 앎에도 ‘이거라도 해야지’ 하는 생각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번 토론을 준비하면서 양 측의 논거를 정리하다 보니 평소 주장하던 내용의 허점을 스스로가 지적하게 되고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 사회가, 그리고 대중의 인식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옳을지 깊게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나의 의견을 주장함에 있어 어떤 방법이 옳고 효과적인지 배울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한 인문학적 소양을 느끼고 반성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갈 길이 멀지만 부족한 점을 짚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다만 교수님께서 통계 수치의 논쟁으로 진행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미리 언급해 주셨는데, 양 측이 서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체가 달라 어긋난 논쟁을 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준비기간 동안 더 많은 논거를 찾고 입장을 다지는 데 몰두할 수 있었다 통계적 논쟁보다는 더 탄탄한 논거로 자신감 있게 발언하고 입장을 펼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후회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미련이 남는 토론이었습니다.

비판적 사고와 토론이 교양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 만큼 반드시 필요한 과목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비 과정과 토론 과정 모두에서 배움이 컸습니다. 컴퓨터과학이라는 전공 특성상 프로젝트 과제가 아니라면 팀플을 할 일이 많이 없지만, 분명 이번 토론 경험이 앞으로 대학 생활을 함에 있어 마주할 수 있는 다른 토론이나 조별과제, 그리고 앞으로의 공동체 생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